“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에 강력 대응”

군산시, 중분위의 수변도시 관할구역 김제시 귀속 결정에 반발… 대법원 소송 제기 예정

군산시는 4월 18일 중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변도시의 행정구역 김제시 귀속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5월 8일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했다.

이번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모든 기반시설이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수도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 이후에도 군산시가 공급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분위는 수변도시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한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모인여행숲도서관’ 개관

모인공원 내에 조성된 여행 특화도서관

1800여 권의 여행 서적 · 관련자료 소장

책을 읽으며 여행을 꿈꾸고, 추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익산시에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3일 모인공원 내에 조성된 ‘모인여행숲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요를 사랑하는 전북권 교사 모임 ‘동요샘’과 ‘비·비 실내악단’의 축하 공연으로 봄날의 분위기를 물씬 더했다.

모인여행숲도서관은 총 393㎡ 규모로 조성됐으며, 1,800여 권의 여행 서적과 여행 관련 자료를 갖춘 여행 특화도서관이다.

특히 세계지도 및 기차형 서가, 기차형 열람 좌석 등 여행을 주제로 꾸며진 공간이 특징이다. 아울러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색 공간으로 홀로그램을 활용한 ‘불멍존’도 마련됐다.

또한 여행의 추억을 담아올 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대여 서비스’와 누구나 모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행 공유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 여는 시간은 오전 9시이며 닫는 시간은 화~금요일은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5시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모인여행숲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장소를 넘어, 여행을 주제로 시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추억을 나누는 문화공간”이라며 “책과 여행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운영을 시작한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은 오는 26일 이지은 작가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이지은 작가는 △츠츠츠츠 △이야호 이파라파냐무냐무 △울지 않는 달 등을 쓴 그림책 작가로, 2021년 볼로냐 라가치상 그림책 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재난안전통신망 27개 읍면동에 보급 완료

군산시가 극한 재난의 상황에서도 긴급 통신이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27개 읍면동 전체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이란 소방을 비롯해 경찰·군·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별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이다.

특히 영상, 고해상도 사진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관계 기관 등 다수 접속자가 상호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단말기 보급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교육’도 실시했으며 교육을 통해 △도입 배경 및 관련 법 제도 △주요 기능과 제공 서비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기본 조작법 △상호통신 실습 등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읍면동과 매일 정기 교신을 하고, 하반기에도 단말기 교육을 통해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통신망의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 추진

군산시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공정보 등록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도 추진한다.

‘지방세 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 · 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그간 여러 번의 납부독촉에도 불구,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누리집, 10년 만에 새단장 돌입… 내년 공개

대표 누리집 포함 29개 웹사이트 사용자 중심 구조 개선

모바일 최적화 · 카드결제 도입 등 시민 편의성 대폭 향상

익산시가 10년 만에 대표 누리집 www.iksan.go.kr)을 전면 개편해 내년 1월 새롭게 선보인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시 대표 누리집을 포함한 총 29개 웹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디자인과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개편 대상은 익산시 대표 누리집을 비롯해 문화관광, 행정복지센터 29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웅포관광캠핑장, 통합예약시스템, 교도소세트장 등의 누리집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응형 웹 구현 △통합검색 기능 강화 △카드결제 기능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 간편화 △사회적 약자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 탑재 등이다.

아울러 시는 보안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주력한다. 특히 통합예약시스템의 경우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춰 교육·시설 예약, 접수 기능을 통합해 제공한다. 분산된 콘텐츠를 일원화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는 오는 5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새롭게 단장한 누리집을 내년 1월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새로운 익산시 누리집을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누구나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누리집으로 탈바꿈해 시민 중심의 행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1건 심의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2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6건으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최종오 의원),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중선 의원),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구 의원) 등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이중선 의원)을 채택했다.

강경숙 부의장은 “완연한 봄기운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면서 “익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익산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동연 의원이 만학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양정민 의원은 동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와 관련,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으며, 김미선 의원은 장마철 대비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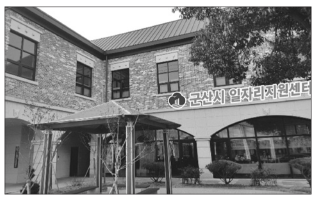
정영미 의원은 익산시 자전거도로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촉구했으며, 오임선 의원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와 관련, 침수대응 체계 강화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 후에는 청렴결의대회를 갖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군산시가 그동안 분산 운영되었던 ‘일자리정보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5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해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정보센터’는 군산시 일자리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작년 한 해 구인·구직상담 555건, 취업 알선 1,027건, 취업실적 183건 등 군산시 관내 기업체와 시민에게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 업무를 수행해왔다.

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해 각 기관별 협조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취업 상담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통합 후 시청 열린민원과와 청년뜰 곳서 분산 운영되던 ‘일자리정보센터’는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영화동, 구영7길 129, 1층)로 이전하게 된다.

또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용 서비스지원, 취업 지원 촉진금 사업을 추진하여 군산 산업단지 간 일자리 격차 해소와 일자리 균형 발전도 도모한다.

특히 올해 3월 출범한 ‘새만금 고용특구 사업단’과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 고용 관련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일자리 사업의 핵심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민들의 의견 적극 수렴 등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